

## \* 관동별곡 전문 해석

(검은색: 원문/ 붉은색 : 현대어 해석/ 파란색: 해설)

江강湖호에 病병이 겁퍼 竹죽林林的 누엇더니,  
 자연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병이 되어서 전남 창평에  
 누워 있었더니, 천석고황(泉石膏肓), 연하고질(煙霞痼疾)-자  
 연을 사랑하는 병

關關東동 八팔百백리니에 方方面면을 맞디시니,  
 강원도 지방의 관찰사의 소임을 맡기시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아아! 임금의 은혜야 갈수록 망극하구나.

延연秋추門문 드리드라 慶경會회 南남門문 바라보며,  
 (경복궁 서문인) 연추문으로 달려 들어가 경회루 남쪽  
 문을 바라보며

下하直직고 물너나니 玉옥節절이 알피 섰다.  
 임금님께 하직하고 물러나니, (관찰사의 신표인) 옥절  
 이 앞에 서 있다.

平평丘丘驛驛 물을 ㄱ라 黑흑水수로 도라드니,  
 평구(양주)역에서 물을 갈아타고 여주로 돌아드니,

蟾섬江강은 어디메오, 雉티岳악이 여기로다.  
 섬강(원주)은 어디인가? 치악산이 여기로구나.  
 (불필요한 설명을 생각하고 빠른 전개)

昭昭陽陽江강 ㄴ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소양강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간단 말인가?  
 연군지정(戀君之情)

孤고臣臣 去거國國에 白백髮발도 하도 할샤.  
 외로운 신하가 서울을 떠나니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  
 기도 많구나. (백발 : 우국지정)

東동州州 밤 게오 새와 北북寬寬亭亭의 올라오니,  
 동주(철원)에서 밤을 겨우 새우고 북관정에 오르니,

三삼角각山山 第데一일峯봉이 ㅎ마면 岬리로다.  
 임금이 계신 서울의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웬만  
 하면 보일 것 같구나. 연군지정(戀君之情)

弓궁王왕 大대關關 吐吐 烏오鵲작이 지지괴니,  
 옛날 궁예왕이 살던 대궐 터에 까마귀, 까치만 지지귀  
 고 있으니, 맥수지탄(麥秀之嘆)

千천古古 興흥亡망을 아난다, 물으난다.  
 나라의 흥망을 너희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淮회陽陽 네 일홈이 마초아 ㄱ틀시고.  
 회양이라는 네 이름이 옛 중국의 지명과 마침 같구나.

汲汲長當孺유 風풍彩彩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여기서 급장유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선정의 포부)

營營中中이 無무事々하고 時時節절이 三三月월인 제,  
 감영 안이 별일이 없고, 시절은 마침 3월인 때,  
 (선정 과시)

花화川川 시내길히 楓풍岳岳으로 버더 있다.  
 화천 시내길이 금강산으로 뻗어 있다.

行行裝裝을 다 썰티고 石石徑徑의 막대 디퍼,  
 행장을 다 펼쳐 버리고 돌길에 지팡이를 짚고

百백川川洞洞 겨티 두고 萬萬瀑瀑洞洞 드러가니,  
 백천동 옆을 지나 만폭동 계곡으로 들어가니,

銀은 ㄱ튼 무지개, 玉옥 ㄱ튼 龍龍의 초리,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처럼 생긴 폭포가

섯돌며 쫓는 소리 十십里리의 ㅈ자시니,  
 섞여 돌며 내뿜는 소리가 십 리 밖까지 퍼졌으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천둥)의 소리더니 가까이서 보  
 니 눈이 날리는 것 같구나.  
 (銀,玉,우레,눈=폭포 비유)

金金剛강臺臺 밌 仙仙層층의 仙仙鶴鶴학이 샅기 치니  
 금강대 맨 꼭대기에 학이 새끼를 치니,

春春風風 玉玉笛笛聲聲의 첫조를 씨뒀던디,  
 봄바람에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에 (학이) 선잠을 깨었  
 던지 (옥피리 : 봄바람 소리 미화)

縞호衣의玄현裳상이 半반공공의 소소 쓰니,  
흰 저고리 검은 치마로 단장한 학(의인화)이 공중에 솟아 뜨니,

西서湖호 넷 主主人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서호의 옛 주인(임포)을 반기는 듯이 나를 반기어 넘나들며 노는구나.

小소香향爐노 大대香향爐노 눈 아래 구버보고,  
소향로봉과 대향로봉은 눈 아래 굽어보고,

正정陽양寺스 眞진歇혈臺디 고터 올라 안존마리,  
정양사 뒤 진혈대에 다시 올라 앉으니,

廬녀山산 眞진面면目목이 여귀야 다 뵈느다.  
여산같이 아름다운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에 다 보인다. (여산 진면목 : 금강산의 참모습)

어와, 造造化화翁옹이 현스토 현스홀샤  
아아,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늘거든 뛰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수많은 봉우리들은) 날려거든 뛰지 말거나 서 있으려거든 솟지 말거나 할 것이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솟아 오르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芙부蓉용을 고장는 듯, 白백玉옥을 못것는 듯,  
부용(연꽃)을 꽃장는 듯, 백옥을 못것는 듯,  
(정적 이미지)

東동溟명을 박차는 듯, 北북極극을 괴와는 듯.  
동해를 박차고 오르는 듯, 북극성을 떠받치는 듯  
(동적 이미지) (북극=임금)

눕히려 望望高高臺디, 외로울샤 穴혈望望峰봉이  
높기도 하구나 망고대여, 외롭기도 하구나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무슨 일을 스로리라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아뢰려고(망고대, 혈망봉 : 자신을 포함한 충신의 절개 상징/ 하늘 : 임금)

千천萬만劫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른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구나.

어와 너여이고, 너 그득니 또 잇는가.

아아, 바로 너(망고대, 혈망봉)로구나. 너 같은 이(지조가 높은 충신)가 또 있겠는가?

開開心심臺디 고터 올라 衆衆香향城성 바라보며,  
개심대에 다시 올라 중향성을 바라보며

萬만二이千천峯봉을 歷歷歷歷히 헤여하니  
만 이천 봉을 똑똑히 헤아리니,

峰봉마다 밋쳐 잇고 굻마다 서린 기운,  
봉마다 밋쳐 잇고 산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 것이지.  
(맑고도 깨끗하다)

더 기운 흐터 내야 人인傑걸을 문돌고쟈.  
저 기운을 훑어 내어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우국지정)

形형容용도 그지업고 體體勢세도 하도 할샤.  
생긴 모양도 끝없이 다양하고 자세도 많기도 많구나.

天텢地디 삼기실 제 自自然연이 되연마는,  
천지가 생겨날 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제 와 보게 되니 有有情정도 有有情정홀샤.  
이제 와서 보게 되니 조물주의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毗비廬로峰봉 上上上上頭두의 올라 보니 그 뉘신고.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 본 사람이 누구인가?

東동山산 泰태山산이 어느야 늑뎡던고.  
동산과 태산이 어느 것이 높던가?

魯魯國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天텢下하 엇찌하야 적닷 말고.  
넓거나 넓은 천하를 (공자는) 어찌하여 작다고 말했는가?

어와 더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아! 저 공자와 같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겠는가?

오르디 못허거니 노력가미 고이홀가.

(비로봉 꼭대기까지) 오르지 못하니 내려감이 이상하겠  
느냐. (정상까지 가지는 않음)

圓원통통골 7눈 길로 獅스子즈峰봉을 초자가니,  
원통골 좁은 길을 따라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알피 너러바회 化化龍룡쇠 되어세라.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화룡소가 되었구나.

千천年년 老노龍룡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마치 천 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晝晝夜야의 흘녀 내어 滄창海히에 니어시니,

밤낮으로 (물을) 흘러 내어 넓은 바다에 이어졌으니,

風풍雲운을 언제 어더 三삼日일雨우를 디련는다.

(저 용은)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시원한 비를 내리  
려느냐?

陰음崖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그늘진 땅에 시든 풀을 다 살려내어라.

	풀	삼일우	풍운	천년노룡
표면		흡족한 비	바람과 구름	화룡소 물
상징	백성	선정(善政)	좋은 시기	작자자신

\* ‘풀’은 민초(民草)의 상징이고, 비는 풀에게 유익한  
것이므로 선정을 의미한다면 화룡소 물이 풍운을 얻어  
비가 내리는 것이므로 작자가 좋은 시기를 얻어 선정  
을 베풀고 싶다는 상징적 의미가 되는 것임

磨마訶하衍연 妙묘吉길祥상 雁안門문재 너머 디여,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를 넘어 내려가

외나모 뼈근 ㄷ리 佛불頂頂臺臺 올라흐니,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오르니

千천尋심絶絶壁벽을 半반空공에 세여 두고,

(조물주가) 천 길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 두고,

銀은河하水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은하수 큰 굽이를 마디마디 베어 내어

실7티 플터이서 뵈7티 거러시니,

실처럼 풀어서 베처럼 걸었으니

(은하수, 실, 베 =폭포수)

圖도經경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도경에는 열두 굽이라 하였으니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여럿으로 보인다.

李니謫덕仙선 이제 이서 고터 의논하게 되면,

만일 이백이 있어 다시 논의한다면

廬녀山산이 여기도곤 낮단 말 못허려니.

여산 폭포가 여기(십이 폭포)보다 낮다는 말은 못할 것  
이다.

(산에서 바다로 이동, 산에는 유국지정이 많이 나타나  
고 바다로 가면 신선의 풍류가 자주 등장 함)

山山中등을 미양 보라, 東동海히로 가자스라.

산중만 늘 보겠는가? 이제 동해로 가자꾸나.

藍남興여 緩완步보호야 山山映영樓樓누의 올라흐니,

덮개 없는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 산영루에 오르니,

玲녕瓏농 碧벽溪계와 數수聲성 啼데鳥도는

영롱한 푸른 시냇물과 여러 소리로 우짖는 산새는

離니別별을 怨원하는 듯,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고, (감정이입)

旌정旗기를 썰티니 五오色색이 넘노는 듯,

깃발을 휘날리니 오색이 너나드는 듯하며

鼓고角각을 섯부니 海히雲운이 다 것은 듯.

북과 나팔을 섞어 부니 바다구름이 다 걷히는 듯하다

鳴명沙사길 니근 물이 醉취仙선을 빗기 시러,

모랫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정철 자신)을 비스듬  
히 태우고

바다를 꺾기 두고 海히棠당花화로 드러가니,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 핀 곳으로 들어가니

白鷗구야 늑디 마라, 네 버딘 줄 었디 아는.  
흰 갈매기야 날지 마라, 내가 네 벗일 수도 있지 않느냐?(백구 : 물아일체 대상)

金蘭난窟굴 도라드려 叢叢石석亭亭 올라오니,  
금란굴 돌아들어가 총석정에 오르니

白鷗玉옥樓누 남은 기둥 다만 네히 서 잇고야.  
백옥루의 남은 기둥 네 개가 서 있구나.

工公垂슈의 성녕인가, 鬼귀斧부로 다드문가.  
공수(전설적 장인)의 솜씨인가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텃야 六六面면은 브어슬 象상뿔던고.  
구태여 여섯 모로 된 것은 무엇을 본뜬 것인가?

高고城성을란 더만 두고 三삼日일浦포를 초자가니,  
고성을 저만큼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丹단書서는 宛완然然히디 四스仙선은 어디 가니,  
(남쪽 벼랑에) 붉은 글씨가 뚜렷이 남아 있으나 (그 글을 쓴) 네 명의 신선은 어디로 갔는가?

예 사흘 머문 後후의 어디 가 또 머물고.  
여기서 사흘 머무른 뒤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던고?

仙선遊유潭담 永영郎랑湖호 거긔나 가 잇는가.  
선유담, 영랑호 거긔에 가 있는가?

淸淸澗澗亭亭 萬만景景臺臺 몇 고디 안뎡던고.  
청간정, 만경대 몇 군데서 앉아 놀았는가?

梨니花화는 벌써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배꽃은 벌써 지고 소쩍새 슬피 울 때,

洛낙山산 東동畔畔으로 義의相상臺臺에 올라 안자,  
낙산사 동쪽 언덕에 있는 의상대에 올라 앉아

日日出출을 보리라 밤둥만 니러히니,  
해돋이를 보려고 한밤중에 일어나니,

祥상雲운이 집피는 동, 六六龍龍이 바되는 동,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여러 마리 용이  
해를 떠받치는 듯,

바다히 썰날 제는 萬萬國국이 일위더니,  
(해가) 바다에서 솟아오를 때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  
하더니,

天天中中의 티뜨니 毫毫髮발을 헤리로다.  
하늘에 치솟아 뜨니 가는 티럭(작은 털)도 헤아릴 만큼  
밝구나.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혹시나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무를까 두렵구나.  
(구름 : 간신 비유)

詩시仙선은 어디 가고 咳히唾타만 나맛느니  
이백은 어디 가고 시구만 남았느냐?

天天地地間間 壯장한 奇기별 々々히도 흘서이고.  
천지간의 굉장한 소식이 자세히도 표현되어 있구나.

斜斜陽陽 峴현山산의 擲척躑躑을 브니볼와  
저녁 햇빛이 비껴드는 현산의 철쭉꽃을 이어 밟아

羽우蓋개芝지輪륜이 鏡鏡浦浦로 느려가니,  
신선이 타는 가마(자신을 신선에 비유)를 타고 경포로  
내려가니,

十십里리 氷빙紈紈을 다리고 고터 다려,  
십 리나 뻗쳐 있는 얼음같이 흰 비단(은유 : 경포 호수의  
맑고 잔잔한 수면)을 다리고 다시 다린 것 같은

長長松송 올흔 소개 슬꺾장 펴더시니,  
(맑고 잔잔한 호숫물이) 큰 소나무 숲이 둘러싼 곳에  
한껏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물결도 잔잔하여 모래알을 헤아릴 정도로구나. (맑다)

孤고舟舟 解히纜람히야 亭亭子子 우히 올라가니,  
한 척의 배를 띄워 (호수를 건너) 정자 위에 올라가니

江강門문橋교 너른 겨터 大대洋양이 거기로다.  
강문교 넘어 그 곁이 동해로구나.

從동容용 혼다 이 氣기像상, 闊활遠원 혼다 더 境경界계,  
조용하다 이(경포의) 기상이며, 넓고 아득하구나 저(동해의) 경계여,

이도곤 7조 더 쏘 어딴 잇닷 말고.  
이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정자 위에서 느끼는 경포의 정밀미(靜謐美)와 바다의 광활함

紅홍粧장 古고事사를 헌스타 헝리로다.  
홍장의 옛 이야기를 야단스럽다고 할 만하구나.  
(헌스럽대(야단스럽다) : 조용하고 아름다운 경포의 분위기  
기에 비해 홍장의 고사가 야단스럽다는 뜻→결국 경포대의 정밀미 강조.)

江강陵능 大대都도護호 風풍俗속이 도홀시고,  
강릉 대도호부의 풍속이 좋기도 하구나.

節절孝효旌정門문이 골골이 버러시니  
충신과 효자, 열녀를 표창하기 위한 정문이 동네마다  
널렸으니,

比比屋옥可가封봉이 이제도 잇다 홀다  
집집마다 모두 표창을 할만하다는 시절이 이제도 있다고 하겠다.(집집마다 효자.충신이 많아 천거할 인재들이 많다, =태평성대)

眞진珠주館관 竹죽西서樓루 五오十십川천 ㄴ린 물이  
삼척 죽서루 아래 오십천의 흘러내리는 물이,

太태白백山산 그림재를 東동海해로 다마 가니,  
그 물에 비친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 가니

출하리 漢한江강의 木목覓觅의 다히고저.  
차라리 이를 한강 옆의 남산에 달게 하고 싶다.  
(연군지정)

王왕程程이 有有限한 風풍景경이 못 슬미니,  
관원의 여정에는 한도가 있고, 경치는 싫증나지 않으니  
(관찰사 일정과 풍류를 즐기고 싶은 마음 사이의 갈등=유희/ 현실을 택하고 신선처럼 즐기고 싶은 욕구는  
결말에서 신선을 만나는 꿈을 통해 갈등 해소)

幽유懷회도 하도 할사, 客객愁수도 둘 디 업다.  
그옥한 회포가 많기도 많구나. 나그네의 수심도 둘 곳 없다.

仙선槎사를 띄워 내여 斗두牛우로 向향할가,  
신선이 탄다는 뗏목을 띄워서 북두성과 견우성으로 향할까.

仙선人인을 초조려 丹단穴혈의 머므살가.  
신라 사선을 찾으려 단혈에나 가서 머무랴?

天塹根근을 못내 보와 望망洋양亭亭의 올은 말이,  
하늘의 끝을 내내 보지 못하여 (그것을 보기 위하여) 망양정에 올랐더니

바다 밝근 하늘이니 하늘 밝근 므서신고.  
바다 밝은 하늘이니, 하늘 밝은 무엇인고

갯둑 노흔 고래, 뉘라서 놀내관다,  
가뜩이나 성난 고래를 누가 놀라게 하기에(고래= 파도)

불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물을 불거니 뿔거니 하면서 어지럽게 구는 것인고

銀은山산을 것거 내여 六육습합의 ㄴ리는 듯,  
은으로 된 산을 깎아 내어 온 천지에 흩뿌려 내리는 듯

五오月월 長당天塹의 白백雪설은 므스 일고.  
오월의 하늘에서 흰 눈이 내리는 것은 무슨 영문인고  
(은산, 백설 : 포말-물거품)  
망양정에 올라 바라본 파도

저근덧 밤이 드러 風풍浪浪이 定定할거늘,  
잠깐 사이에 밤이 되어 바람과 물결이 가라앉기에

扶부桑상 咫지尺척의 明明月월을 기다리니,  
해와 달이 뜬다는 곳 아주 가까운 근처에서 밝은 달을 기다리니(扶桑 - 해 뜨는 곳 : 咸池 - 해 지는 곳)

璫瑒光광 千천丈丈이 뵈는 듯 숨는고야.  
천 길이나 뻗은 상서로운 빛이 나타났다가는 이내 숨는구나.

珠珠簾렴을 고터 짓고, 玉옥階계를 다시 쓸며,  
구슬로 만든 발을 다시 걷고, 옥돌 같은 섬돌을 다시 쓸며

啓계明星星성 듯도록 곳초 안자 바라보니,  
새별이 돌아나도록 꽃꽂이 앉아 바라보니(시간의 흐름)

白晝蓮年花화 훈 가지를 뉘라서 보내시고.

흰 연꽃과 같은 달덩이를 어느 누가 보내셨는고  
(달의 보조관념(은유, 미화))

일이 도흔 世세계계 늪대되다 뵈고져.

이렇게 좋은 세계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보이고 싶구나.  
(애민정신, 선정에 대한 포부)

流流霞하酒주 7득 부어 들되려 무론 말이.

신선주를 가득 부어 들고 달에게 묻기를(자신을 신선에 비유)

英英雄웅은 어디 가며, 四々仙선은 그 뉘러니,

영웅들은 어디로 갔으며, 사선(四仙)은 그 누구이던가

아미나 맛나 보아 넷 그별 못자 하니,

아무나 만나 보아 옛날 소식을 물으려 하니

仙仙山산 東동海히에 갈 길히 머도 멀샤.

삼신산이 있다고 하는 동해 바다로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망양정의 달맞이

松송根근을 베여 누어 풋좁을 얼끗 드니,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얇은 잠이 잠깐 드니

꿈애 훈 사람이 날되려 날온 말이,

↑꿈의 시작 꿈에 한 사람(신선)이 나에게 이르기를

그디를 내 모르랴, 上상界계에 眞진仙선이라.

그대(작자)를 내(신선)가 모르랴 그대는 하늘나라의 신선이라

黃황庭딩經경 一일字즈를 엮디 그릇 닐거 두고,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 가지고

(황정경은 천상의 경전으로 한 자라도 잘못 읽으면 인간세계로 추방 된다는 전설이 있음)

人人間간의 내려와서 우리를 쫓오는다.

인간이 사는 세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훈 잔 머거 보오.

잠깐 동안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먹어 보오

北북斗두星성 기우려 滄창海히水슈 부어 내여,

북두칠성을 기울여 푸른 바닷물을 부어 내어

(북두성 : 술 푸는 국자/ 창해수 : 술)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저(신선)도 먹고 나(작자)에게 먹이기에, 서너 잔을 기울이니

和화風풍이 껍습껍습하야 兩兩腋익을 추혀 드니

온화한 바람이 불어들어 양 겨드랑이를 추켜 들어올리니

九구萬만里리 長당空공에 저기면 놀리로다.

구만 리나 되는 높은 하늘에 웬만하면 날아갈 듯하구나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르는 기분

=소식, 적벽부의 '우화등선'(羽化登仙))

이 술 가져다가 四々海히에 고로 논화,

이 술을 가져가서 온 천하에 고루 나누어

億億萬만 蒼창生싱을 다 醉취케 밍근 後후의

모든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고타 맛나 쏘 훈 잔 흥잣고야.

그 때에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작자의 말)-선우후락(先憂後樂), 선공후사(先公後私), 애민정신(愛民精神)

꿈을 통해 갈등(왕정과 풍경 사이의 유희)이 해소되는 부분(목민관으로서 현실에 충실하며 신선처럼 풍류를 즐기는 것은 꿈 속에서 누리는 방법을 선택)

말 디자 鶴학을 타고 九구空공의 올라가니

말이 끝나자 (신선은) 학을 타고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니

(꿈에서 깨어남)

空空中중 玉옥簫쇼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공중의 옥통소 소리가 어제던가, 그제던가 싶게 어렵듯하구나  
나도 잠을 끼여 바다를 구버보니,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기피를 모르거니 7인들 엮디 알리.

깊이를 모르는데 그 바다 끝을 어찌 알겠는가(앞의 '바다  
밝근 하늘이니 하늘 밝근 므서시고.'에 대한 대답자  
의 할 일이 많다는 것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다짐  
으로 볼 수 있다.)

明明月월이 千천山山萬만落낙의 아니 비친 디 업다.

밝은 달빛이 온 세상에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상  
징으로 보기도 함/3543→시조의 종장과 같은 율조(정  
격가사)